

댓글 소식



학교 졸업하고 갑자기 골골골하고 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니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 ㅠ ㅠ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3기 이현정)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강사로 활동합니다. (2기 김정숙)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템플스테이하러 오세요. (3기 박권호)

기준에 하던 일(공장자동화)하고 있습니다. (5기 박창순)

상담심리사 2급 취득!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재학중. (4기 이은주)

어렵겠지만 아름다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4기 김동윤)

15통할 배우며 중학교 들어가는 아들과의 라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상담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즐거운 노력을 하고 있네요~^^ (3기 김보선)

올해 자격증 취득하고 방송대 인턴도 마치고 열심히 이력서 쓰고 있습니다. (4기 신수진)

안녕하세요? 현재 본교 상담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송파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자원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상담자가 되는 것이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5기 이지현)

청소년 상담사 2급 취득 후 광명시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관련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을 전문상담사 자격으로 근무하며 실시하고 있습니다. (3기 이수연)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저는 원주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전문상담사로 즐겁게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기 전영미)

^^ wee 센터에서 초중고 학생들과 씨름중입니다. (1기 홍관화)

동부 wee 센터에서 아동, 청소년 친구들 상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 (1기 조아라)

최근 강북 iwill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 (1기 채병준)

뭐라 쓸 말이 없네요. 남편님의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되었고... 그 시점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지금도 제를 지내는 중이라 몸이 엄청 바쁘네요... (3기 이영향)

현재 두 곳(송파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5기 강미숙)

저는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담요스^^ 그러나 아카데미도 열심히 듣고 있고요. 내년에는 재무상담과 심리상담을 병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5기 표윤봉)

회사명을 메타코칭에듀케이션으로 바꾸었습니다(www.청소년코칭.com). 매주 월요일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의 청소년을 위한 코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기 최성환)

소식지와 함께 한 블금..  
인스텔라도 못보고  
TT

편집 후기

여기서도 막판 초치기  
어깨가 아파요~~

참, 재미있었어요~  
\*\*샘의 새로운 발견!

알림 마당

제2회 원우회 총회 개최

제2회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원우회 총회가 오는 11월 28일 오후 7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날은 저녁 뷔페와 여러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3대 원우회장 선출 안내

제 3대 원우회장 선출을 위한 추천 및 지원을 받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추천을 받고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회원들의 문자투표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당선된 차기 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취임하게 됩니다.

회비 납부 방법

농협 352-0328-4898-13 (예금주: 박경리)

원우회비 내신 분

이현정 정양미 김진경 전민아 강미숙 김선경 김영숙 이지현  
조명심 표윤봉 황운정 이명옥 권순옥 최규하 이유정 한영주  
전향숙 여현심 김난영 박창순 조희순 김수진 오혜원 김은선  
오현정 유재인 김은선

임원회비 내신 분

유인순 김선경 이지현 조명심 전민아 김영숙(4기) 김영숙(5기)  
표윤봉 박경리 정양미 김진경 최성환 김나영 홍관화

2014. 11. 28

제 2 호

발행\_원우회장 전민아

편집\_김영숙, 전민아, 유재인

디자인\_김영숙

삽화\_유재인

인쇄\_제이앤디 02) 2279-0164

이메일\_kcguwon@kcgu.ac.kr

KCGU

원우회 소식

축하메세지

(총장님, 박재우 교수님)

인사말 & 15세상담연구소

(원우회장, 학생회장, 박순주)

군상담 (김보선)

상담센터

(김나영, 이광경, 김영숙)

인문상담

(김성희)



# ☐ 소식지 2호 축하메시지



KGU 원우회 소식지 2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2010년 3월에 개교한 우리 대학원은 "자아실현과 성숙한 삶을 위한 상담"을 실현하고 "인문학에 기반한 상담학의 새 지평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학자들이 갖가지의 언어로 상담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피력해왔습니다. 그 정의들에 포함된 공통분모는 "인간의 자기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기초로 저는 나름대로 <상담은 "삶속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삶속의 삶"이란 자기가 진 정으로 원하는 삶,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학교에서 가르 치는 교수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두 "삶속의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며, 우리들은 모두 상 담을 공부하면서 상담 정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작지만 특별한 학교"를 지향하면서 우리 학교는 "상담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상담의 과정을 좀더 깊이 있고 차원 높게 이끌어 가는 상담자"를 교육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된 원동력은 우리 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그 근 원이 있습니다.

2012년 1회 졸업생들이 결성한 원우회에서 학교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졸업생의 근황을 알리는 KCGU원우회 소식지를 2013년 11월에 배포한 일은 참으로 의미가 컸습니다. 금년에 소식지 제2호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교의 명예는 그 학교의 졸업생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빛내주는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이해성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여러분, 사랑과 실력을 겸비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 땀 흘려 정진하십시오.

먼저 원우회 창립 2주년 원우회지 발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악한 국내의 상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원우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이라는 서비스 종사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일류의 대접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비스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으나 의사나 상담사나 모두 환자와 내담자가 있기에 존재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담자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한 대접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작아서 실망하고 계신 혹은 이 사회 내에서 적절한 공헌처를 얻지 못해 지친 분들이 계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처음 시작했던 때의 마음, 바로 초심이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들 중에 '나는 너무 행복하고 유복한 시절을 보내고 잘 자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겠노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시작한 사람이 드물고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자신의 상처를 부둥켜안고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세우던 삶의 한 자락에서 나도 이제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각오로 이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상담자이자 목회자이신 한 분은 어린 시절이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다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그 길이 지금의 수많은 영혼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에 꼭 필요한 길이요 십자가였다면 두 말 않고 그 길을 다시 걸겠노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원우회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가 당신의 미래에 만날 귀한 영혼들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수련을 받던 시절에 다른 공학 계열 전공자들은 군대를 면제 받고 적절한 월급을 받으며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면서도 십일조 5만원을 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첫째 수련 기간에 수련을 포기한다면 연봉 수천만원에 상담 관련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회사에 입사할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셨던 분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

이었습니다. 제게는 내담자를 잘 섬길 수 있는 기술과 자격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귀 영화를 보려고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며 상처 입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내담자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그를 도울 실력을 겸비한 상담자가 되십시오. 최근 기독 상담을 받았다는 어떤 내담자로부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 힘들어 하는 자신을 상담자가 정죄하여 힘들었다는 내용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가 회복을 위한 길인 것은 용서하지 못하겠노라고 상처 입은 울분을 토해 내는 내담자도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내담자의 말이 자신의 신앙심을 건드려 내담자를 버티어 주고 인내해 주는 힘을 잃는 상담자가 있다면 자기 수양의 길에 더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음이므로 로저스가 언급한 세 가지 태도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의 태도를 견지하는 사랑의 용량을 키워가는 상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로 인해 이러한 능력이 제한을 받은 상담자들을 더러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 없음을 무슨 직면 기법이나 되는냥 허세를 부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깊은 사랑과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최신 기술들에 마음을 열고 그 기술을 갈고 닦는 원우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격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에도 동참하면서 상담자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한 수 한 수를 두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배경에 200여 모교의 재학생들과 총장님 교수진들이 든든한 힘이 되어 주기 위해 버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로부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하에서 고객들은 상담보다는 검사가 고가의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져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으나 여러분의 상담자로서의 무기를 갈고 닦음에 있어서 내담자를 평가하는 고비용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또한 추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 학교의 상담센터를 임상심리 전문가 필수수련 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본교 상담센터는 레지던트 수련부터 좀 더 현실화된 급여에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전문가 수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수련 기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글을 맺으려 합니다. 화장터 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옆 빈소의 가족들이 저희와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고인을 보내드리는 자리에서는 드문 일이어서 알아 본 결과 유족 중 한 분이 어머니께 진료를 받고 결핵이 나은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전염 위험이 높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콧물이며 가래를 손수 닦아 가시며 진료를 보신 것으로 유명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총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의 기틀을 잡아 오셨고 상담심리학회장까지 역임하신 유수한 교수님들과 다른 여러 교수님들이 같은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내담자에 대한 사랑과 기술을 겸비한 상담자로서의 길 후학 양성의 길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을 가지고, 마음 깊은 지극한 마음으로 내담자를 만나고 그리고 실력을 가지고 내담자를 치유해 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의 상담자가 되는 길을 200여 재학생과 총장님 교수님들과 함께 끝까지 걸어갑시다.

교수 박재우



# ☐ 인사말 & 15세상담연구소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원우회 발족부터 소식지 창간, 송년 모임 등을 주관한 첫 원우회장이신 유인순 선생님에 이어 껍도 없이 두 번째 원우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학교는 11기 입학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졸업생의 수는 벌써 1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적, 양적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학교의 일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벅찬 일입니다.

졸업 후 상담센터에 근무하면서 학교 안 졸업생으로서 학교 밖 원우회원들을 좀 더 가까이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덜컥 맡았지만 돌아보니 아쉬움과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한다기 보다 원우회원들께서는 이미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를 위해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세월호 사고 PTSD 교육을 주관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축하의 글을 써주신 총장님, 박재우 교수님과 학생회장님,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소식을 전해주시는 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식지와 송년모임을 준비하며 다시 한 번 사람의 힘을 느끼는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원우회 임원들, 소식지에 아름다움을 더해주시는 유재인 선생님, 편집의 귀재 김영숙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보니 내년 3호가 기다려집니다.

2014년은 유난히도 죽음이 가까이 있었던 해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대를 함께 한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며 가까운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과 행복을 바랍니다.

원우회장 전민아 (석사 3기)



원우회 선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작년 겨울, 뭔지도 모르며 바쁜 일상으로 여기 저기 휩쓸려 다니던 시절에 만났던 원우회 창간호.. 그 때 마주했던 반가움을 되돌아보며, 계속되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소식지 2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길목에 서면 늘 아쉬움이 그림자처럼 함께 따라옵니다. 7기로 입학한 저희들도 이 겨울의 끝자락에 이르면 학교의 문을 나서기 시작한다는 것이 못내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도처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파도처럼 물결쳐 오는데, 학교의 문을 나서야 한다는 두려움이 저희들 앞에 먼저 와 서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길을 앞서 가시어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시고, 항상 저희를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함께 하시기에 이러한 두려움은 불현듯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졸업이란 하나의 문턱을 넘어, 원우회에 새로운 신입생으로 다시금 출발선에 서게 되는 저희들에게 원우회는 가족처럼 편하게 느껴지는 공동체입니다. KCGU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듯이, 앞으로 선배님들과 함께 이러한 선택을 가꾸어 가고자 하는 저희 후배들에게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원우회 소식지 2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학생회장 김영진 (석사 7기)



## 15세상담연구소

### 15세상담연구소를 소개합니다 !

2010년 3월에 입학한 이후로 벌써 9번째 학기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입생 분께서 절 보며 ‘말로만 듣던 1기?’ 하며 놀라 더군요. 전 그렇게 골동품처럼 아직도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점점 아는 얼굴들이 줄어들더니 이젠 거의 교수님들 빼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나영 선생님이 상담센터에서 굳건히 함께 있기도 하지요.

저는 현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부설 15세상담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나 학교소식지에서 들어보셨죠? 연구소는 올 5월 22일에 개소한 이래로 <十五通活(십오통활): 15세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하여 현재 서울, 경기, 강원도의 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중이며, 지도자양성과정을 통해 십오통활 집단상담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고 서울시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구요. 올 겨울방학에도 현직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기초, 심화 직무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민일보와 MOU를 맺고, 건강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을 목표로 전국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두둥!!! 일간지에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15세상담연구소’ 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현재 연구소장으로는 한영주 교수님이 계시고, 우리 학교 박사생 3명과 석사생 1명이 있습니다. 석사 조교 2명도 있습니다. 학교 인근 수림빌딩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실과 교육실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덕에 연구소의 일은 넘쳐납니다 ^^ . 현장에서 다양한 청소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성장통을 겪어 내면서 청소년상담자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들에게 아이들은 ‘이해받고 공감 받았다’며 감사해 합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힘이 나고 감사한 건 정작 우리 상담자들인데 말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변하는 때가 사춘기잖아요. 사춘기의 정점인 중학교 1~2학년들을 만난다는 건 상상 그 이상입니다. 때론 놀랄 만큼 멋진 때도 있고, 때론 가슴을 쓸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그때 아이들이 해야 할 정상과업이니까요.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수많은 경쟁과 통제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상담자들이 아이들 곁에서 건강하게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상담과 더불어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를 대표할 15세상담연구소에서는 서울시 자유학기제에 선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전문상담자들이 필요합니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양성과정에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권해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원우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청소년상담자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후년에 전면 실시 될 자유학기제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학교에 오실 일이 있으시거나, 연구소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연구소에 놀러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연구원 박순주 (석사 1기, 박사 4학기 재학 중, 02-522-7315, 8315, fifteenrite@kcgu.ac.kr)



## □ 군상담



안녕하세요. 수도방위사령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김보선입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써 글을 써 달라는 말에 고민을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는 요즘,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낭만에 젖게 하는 요즘 조금은 소진이란 부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기에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은 누구에게나 한해를 돌아보며 반성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13년 4월부터 민간상담관으로 11개월, 전문상담관으로 10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의 병사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군의 의존도와 그에 따른 병사들의 변화, 감사의 표시에 기대어 개인적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전문상담관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기에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즉 역할의 균형을 엄두하고 과도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조직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개인과 개인,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와 그 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경계를 인식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상담관으로서 갖는 지속적인 딜레마입니다.

특히 2005년부터 작은 조직, 또는 프리랜서 상담사로 일한 저로서는 조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관계없이 일을 하던 것도 절제해야 했고 군인의 생활패턴과 욕구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종일 일하는 직

장에서 개인적인 친밀감을 갖는 것과 상담을 위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박애정신과 돌봄에 대한 의무으로 시작했던 것에서 내 맘대로 하려는 자신을 보았고 이를 다루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에게 군대라는 곳은 상담사로서 자신을 좀 더 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고 병사들을 상담하는 만큼 나 자신도 상담을 받으며 겸손한 변화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내면에서 진정한 도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고 이에 준비되기 위한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매우 고차원적인 말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던지 작게라도 자기반성, 자기성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다고 생각하기에 매 순간 한없이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의무 복무를 하는 모든 병사들을 응원합니다.

“당신 삶에는 이미 좋은 경험들이 있었고 지금도 잘해내고 있습니다.”

2014. 11. 10. 늦은 숙제를 하듯 모교를 생각하며

김보선 (석사 3기)

## □ 상담센터



2009년 여름. 타 대학원 휴학 중이었던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지도교수님을 뵙기 위해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를 처음 방문하게 되면서 학교와 나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학교 설립에 대한 총장님의 이념과 훌륭한 교수님들만큼 내 마음을 설레고 관심 있어 했던 것은 2층에 자리 잡고 있던 상담센터였다. 입학 후 상담센터 위치는 그대로 존재했지만 내가 예상했던 바와 달리 상담자는 없었다. ‘이렇게 좋은 상담센터에 왜 상담자를 채용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본교 출신의 사람으로 본교에서 훈련된 상담자를 배출하여 상담센터가 운영되기를 원하는 총장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그 배출된 상담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상담센터에서 나의 상담자의 길을 펼쳐보고자 하는마음이 강했다.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의 1기 입학, 1기 졸업, 그리고 1기 인턴생활과 1기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올 해 첫 전임상담원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2012년 상담센터 개소 준비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흘러 이제 3년째 상담센터에서의 근무가 되었다.

첫 전임상담원으로 2014년 한 해는 상담자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은 한해였다. 성장이 있었던 만큼 몸도 마음도 분주했다. 내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례들과 상담 이외의 새롭게 나의 일들이 된 여러 행정적인 일들이 손에 익숙지 않아 끙끙대며 애를 많이 먹었다. 해나가야 할 일들은 많았고 첫 전임상담원이라는 위치에서 잘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도 많았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아끼지 않는 격려를 주신 센터장 주영아교수님과 학교에서 보면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여러 교수님들의 응원 그리고 함께 고생하고 많이 도와주신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 덕에 힘내서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올 한해는 상담센터 홍보에 신경을 참 많이 썼다. 홈페이지와 브로슈어 제작 그리고 지역 내 복지관, 연계 신경정신과 등 여러 기관들과 MOU체결을 하면서 지역에 상담센터를 많이 알렸다. 미흡하지만 여러 차례 미즈내일 주간지에 기사를 실으면서 상담센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그 덕인지 상담센터를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졌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자발적인 청소년들의 내방이었다.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나 중·고등학교에서 근무 할 때 만나던 청소년들은 대개 비자발적이었지만 최근 내가 상담센터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다들 자발적이고 학업성적이 최상위 권에 드는 중학생들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왔다.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님이 호소하는 주문제는 ‘중2병’. 이들이 경험하는 ‘중2병’은 다들 학업과 또래관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보이며, "왜?"라는 질문으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의 어려움 보고에는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면들이 보였다.

“공부는 내가 한 만큼 나오지만, 친구관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제가 목표한 곳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해요. 근데 그 중에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잘 안되는데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친구관계예요.”

그들의 표현 하나 하나에 상담자로서, 그리고 사회의 한 성인으로서 많은 생각들이 들게 했다. 과연 저 반응이 청소년들의 현주소인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저렇게 밖에 선택할 수 없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상담자로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이 참으로 많아지는 사례들이었다. 나는 최소한 경쟁을 부추기는 어른이 아니라 좀 더 단단하고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돕는 그런 조력자가 되고 싶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미미한 변화지만 조금씩 성장해나가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내가 상담자로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며 매주 그들을 만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원하던 자리에서 일한지 한 해가 흐르고 있다. 첫 전임상담원으로 분주했던 기억들이 많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2010년 입학 이후 학교를 떠난 적이 없어서인지 나날이 학교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나 또한 상담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어 즐거울 때가 참 많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다가올 2015년도 기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빌어 감사하고 행복한 속에 전임상담원의 자리에 있게끔 기회를 주신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한 해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낸 우리 상담센터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전임상담원 김나영 (석사 1기)



### 노인집단상담을 진행하면서

노인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까지, 부끄럽지만 나는 노인에 대해 일반적인 생각, 에너지가 없고 우울하거나 생각이 경직되고 고집이 센 그래서 말이 잘 통하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입견과 관련된 이런저런 염려를 하였고 그에 대한 대비도 일부 했었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염려가 나의 선부른 판단이었음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서초중앙노인복지관의 자아통합감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깜짝 놀랐다. 물론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고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긴 하였으나, 어르신들이 얼마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싶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지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한 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은 나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만들었고 다른 집단원들에게도 서로서로 더 열심히 참여하게 하는 기분 좋은 긴장을 만들어 주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분 한 분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엮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뿌듯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아직 나는 노년기를 경험하지 못하여 노년기의 의미를 충분히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런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누군가 '인생은 만남, 나눔, 그리고 떠남'이라고 했다는데.. 올 한 해 나는 집단에서 본받을 만한 어르신들을 만났고 언젠가는 프로그램 종결과 함께 이별을 하겠지만 지금의 아름다운 나눔에 꼭 잠기고 싶다.

레지던트 이광경 (석사 2기)

## ▣ 상담센터

### 새내기 상담자로 첫 해를 보내며

석사학위 논문 마무리로 정신없던 작년 이맘 때, 인턴 지원서를 제출했던 것이 어제 일만 같습니다. 다행히 인턴 상담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올 한해는 대학졸업 후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와 비슷한 긴장과 설레임을 제 생활에 물고 왔습니다. 강의실이 있는 3층이 학교와 같았다면 2층은 제 직장생활의 생리를 다시 일깨우는 장소였습니다. 상담센터는 다이나믹과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1-2월에는 상담센터를 소개하는 팸플렛과 센터 홈페이지 개발을 위해 디자인과 내용을 고민하고 관련 업체를 컨택하느라 바빴고, 3월부터는 군부대와 MOU를 맺은 석관중학교에 파견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센터 내 개인상담 외에도 숙명여중 집단프로그램,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요청한 영동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접수 상담 등을 병행했습니다.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손을 놓았던 운전도 다시 시작해야 했고, 요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제가 상담자로 불려다니는 사실에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몸과 마음이 부대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내공이 쌓였는지 가을부터는 저 뿐만 아니라 상담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갑작스런 집단프로그램 요청이나 스케줄 변경에도 어느덧 익숙해졌음을 느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생각하게 되는 이즈음, 상담을 통해서 만났던 모든 얼굴들이 새록새록 합니다. 어느덧 조카뻘이 돼버린 군장병들을 처음 만나고 온 뒤, 먹을 것들을 볼 때마다 저걸 갖다 주면 좋아할 텐데 하던 마음, 산 아래로 뻗어 내려다보이는 서울시내를 바라만 보면서 철문을 지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젊은 병사들의 마음에 못내 아쉽고 가슴 아팠던 기억에 평소엔 관심이 없던 <진짜사나이> 예능프로그램을 찾아 보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에 발치의 민들레꽃을 발견하고 ‘저 꽃도 살려고 그렇게 피어났는데...’ 싶어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로 저를 눈물흘리게 했던 내담자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건 지난 10월말에 다녀온 여수 해양경찰 동료상담자 양성과정 집단프로그램 진행이었습니다. 당일 일정으로 빠듯하게 다녀왔지만, 여수 EXPO역에 내려 택시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향하면서 보았던 여수바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교육원의 방대한 규모와 시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놀라웠던 것이 바로 교육에 참가한 해양경찰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만난 그 어떤 집단대상원들보다 간절하게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담의 기법을 교육받아 자체적인 동료 상담을 통해서라도 조직원을 추스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고픈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만난 지 만나질도 되지 않은 그 분들의 소감에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진행에 참가한 모든 선생님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가슴에 뜨거운 화두를 엮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많이 있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으로 상담의 여러 접점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교 상담센터에서 인턴으로 상담실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거기에 늘 술선수범으로 저희보다 더 바쁘게 한 해를 보내신 주영아 센터장님의 애정과 1년 여를 함께했던 동료 선생님들과의 끈끈한 정은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때마다 저를 격려해주는 에너지원으로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새내기 상담자로 힘차게 시작한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원우회 여러분께서도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성장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턴 김영숙 (석사 5기)



## ▣ 인문상담

### 인문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한 2014년

2014년 인문상담 프로그램의 포문은 < 사서를 위한 고전강독 - 니체 함께 읽기>가 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립도서관 사서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4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철학특강 (노성숙교수님, 김경희 교수님, 진은영 교수님,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님) 5회와 분임별토론 3회(각회 3시간 30분 정도)로 구성되었고 우리 학교 석,박사과정생 및 졸업생들이 분임리더로서 참여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를 읽고 나누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우리들이 가장 고심했던 것은 이 토론이 어떻게 자신을 성찰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가였다. 노성숙 교수님의 지도 아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의 핵심개념 중 정신의 세 변화, 위버멘쉬, 영원회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회의가 온, 오프라인에서 두 달 넘게 진행되었고 8명의 분임리더들은 최선을 넘어서는 최선을 다했다. 니체가 말하고 싶어했던 삶에 대한 끝없는 긍정과 스스로의 삶에 대해 창조적 주인되기가 토론에 참여한 사서들 스스로의 결론으로 도출되도록 돕는 과정이길 원했던 우리의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총 10시간쯤의 토론 시간을 위해 상담학 아카데미(3.10~4.7)에서는 진은영 교수님의 니체 수업이 다시 열렸고, 니체를 공부하며 리더교안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질문과 답안을 구성하는.



모든 과정이 나에게 새로운 탐색과 성장의 시간이었다

5월 23일에 한차례 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사서교육프로그램 - 독서토론포럼에 우리 학교가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는 노성숙 교수님의 지도하에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을 통한 성찰적 책읽기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다. 새로운 팀이 구성되면서 학교 다닐 때 수업을 함께 했던 졸업생 선생님들과 일하게 되니 다시 학교를 다니는 기분이었다. 벚꽃잎이 쏟아지는 풍경을 뒤로 한 채 카뮈와 ‘이방인’ 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니! ‘이방인’ 을 인문상담학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 또 고민했고 작품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통찰이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의 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독서활동이라는 개인적인 행위가 토론을 통해 보다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 상담이 갖는 성찰과 치유의 힘을 너무도 잘 아는 우리 팀은 문학 작품을 매개로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새로운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 수용적인 분위기, 관심과 존중의 태도를 한시도 놓치지 않을 때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다. 거듭되는 프로그램 시연의 과정을 통해 같은 프로그램도 모인 구성원에 의해 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탄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8월 31일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연극 <레빗홀>의 관객토론프로그램에 모더레이터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극을 관람한 관객들이 그룹토론에 참여하여 연극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찰을 공유하고 각자의 레빗홀을 존중하게 되는 과정을 체험하는 인문상담프로그램이었다. 연극이라는 공통분모 외에는 모든 점이 다양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더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올해 참여한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 진행기간도 길었던 것은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주최한 ‘문학 번지다’ 프로젝트 공모 선정작 <나를 돌아보는 여덟 개의 방>이란 프로그램이었다. (일반시민 49명을 대상으로 연희문학창작촌에서 9~10월 목요일 저녁마다 진행)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인문상담연구팀이름으로 진은영 교수님의 지도하에 진행된 이 프로그램을 위해 7명의 팀원들은 지난 1월부터 11월 첫 주까지 거의 매 주 네 시간 이상의 회의와 온라인 작업이 병행했다. 공모전의 성격 상 시인 및 작가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야하는 작업이었고 ‘시를 통한 자아성찰 ‘이 가능하도록 시를 활용한 다양한 작업이 구상되었다. 함께 읽고 직접 창작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처음 만난 타인과, 때로는 자기 자신과 소통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치유하는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싶다).

진행되는 프로그램 한 가지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체험한 한 해였다. 그 노력과 시간들이 프로그램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만들어낸다. 멋진 생명체로 자라게 될 인문상담 프로그램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행운이자 기쁨이었다. 인문상담학의 힘을 믿고 장을 열어주시는 총장님께 늘 감사드리고 큰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 준 동료 팀원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김성희 (석사 2기)

## 어떤 경우

이문재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 ☐ 학교 소식

## ☀️ 서울시 교육청-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건강한 청소년 양성 및 심리적 정서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의 MOU 체결지난 4월 17일 목요일, 본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자유학기제 연계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한 청소년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강한 청소년성 확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성장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청소년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본교의 교수진과 학생들의 참여로 1년 3개월여 동안 촬영된 EBS <다큐프라임> 「교육혁명, 15세에 주목하라」 프로그램이 올해 3월 중 방영된 바가 있다.그 동안 상담에 철학적 사유와 문학적 통찰을 접목시킨 인문상담학을 구축하여 한국 상담학의 새 지평을 연 본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 중학생의 건강한 청소년성 확립 및 교원의 상담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치료법의 실습

본교에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세월호 사건으로 외상 경험을 한 내담자들을 돕기 위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교육 및 워크샵이 실시되었다.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치료법의 실습'의 제목의 이번 워크샵은 본교의 박재우 교수가 강의와 실습을 담당하였으며 2회에 걸친 이론 교육과 1회의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본교 졸업생들을 주 교육대상으로하여 외상-초점적 인지 행동치료 전반과 치료의 핵심 요소로서의 체계적 둔감화 기법의 내용의 강의와 실습이 진행되었고, 불안울 다루는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기법인 V-K dissociation 기법을 시연하고 실습하였다. 한편, 본교 상담센터 인턴 및 레지던트들은 진도 현지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하였고, 박재우 교수를 포함하여 본교의 몇몇 교수들은 현지에 가서 외상경험을 겪고 있는 재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인 도움이 될 구체적인 계획안을 협의하였다.

## 🌸 15세상담연구소 개소, 교사 직무연수 실시

건강한 청소년성(Youth Spirit) 확립을 위한 15세상담연구소 지난 5월 22일 본교 부설 15세상담연구소의 개소식이 거행되었다. 15세상담연구소는 본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지난 1년 3개월간 공진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발한 "15통활(通活)" 프로그램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서울시 교육청과 맺은 MOU를 바탕으로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와 교사연수에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5세상담연구소에서는 8월 7일부터 9일(총 15시간)까지 교육청 소속 교사 24명을 대상으로 十五通活 프로그램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사춘기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 개관에 관련된 강의를 시작으로 3일간 '나', '너', '성', '꿈' Part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진행한 교사 직무연수에서 교사들로부터 '가장 어렵다던 교사집단 연수를 원활하고 부드럽게 진행해서 강의 시간 내내 편안했다.', '성심성의껏 준비한 것 같아 감동적이었다.', '학생들과의 관계와 인간성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프로그램이 관점을 달리하여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15세"는 중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상징적 총칭이다. 15세상담연구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할 15세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청소년성(Youth Spirit)을 길러주는 연구소가 될 것이다.

## 🌿 연희문학창작촌 2014 <문학, 번지다> 프로젝트

본교 인문상담연구팀의 참여로 진행되는 연희문학창작촌 2014 <문학, 번지다> 프로젝트 선정작인 시를 통한 자아성찰, '나를 돌아보는 여덟 개의 방' 프로그램이 2014년 9월부터 8주 동안 매주 1회씩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김소연 시인, 김지은 동화작가, 박시하 시인, 심보선 시인, 오은 시인, 진은영 시인 등 등단작가 6인과 영문학자 정은귀 교수, 철학자 노성숙 교수, 상담심리학자 한영주 교수,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인문상담연구팀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 공동작업으로 진행되는 문학소통프로그램이다. 문학소통은 작가나 텍스트와의 공명과 이해를 넘어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께 읽고 직접 쓰는 창작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자기, 해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찰을 통해 다양한 '자기들'과 소통하면서 인문학 안에 담긴 성찰성과 치유의 힘으로 현재의 삶을 재조명해보고자 기획되었다.

## 🌸 본교-서울지방병무청 상담서비스 업무협약(MOU) 체결

본교는 지난 8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과 사회복지무원 상담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사회복지무원의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협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담서비스를 의뢰·제공하여 공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은 복무 지도 중 복무 외 사회생활의 부적응 문제, 개인적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무원을 발견한 경우 본교에 상담을 의뢰하게 될 것이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는 의뢰된 사회복지무원에 대하여 본교 상담센터에 방문하도록 하거나 가능한 경우 사회복지무원의 소속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1인당 10회기까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